백두산

7.27 특집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요인

현대조선역사

정전협정문서에 서명하시는 김일성주석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조선인민이 진행한 조국해방전쟁은 인류역사에 일찌기 없었던 가장 준엄하고 가열찬 전쟁이였다.

침략자들이 전선에 들이민 군대와 화력기재의 밀도, 군사장비의 현대화에 있어서 또는 전쟁수법의 야만성과 인민대중에게 감행한 살육만행의, 잔인성에 있어서 조선전쟁은 지난날에 있은 그 어느 전쟁과도 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유례없이 가열하고 엄혹한 전쟁의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고 역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역사적 승리는 **김일성**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만 이루질 수 있었다.

김일성은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면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빛나는 승리로 현명하게 이끌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였다.

주체사상은 사회경제적 변혁과 경제, 문화 건설을 위한 사업에서 뿐 아니라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도 그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쟁승리를 위한 독창적인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내놓았으며 전선과 후방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정확히 풀어나갔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정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에게 그 어떠한 엄혹한 시련도 이겨내고 원쑤와 싸워 이길 수-있는 필승불패의 사상정신적 양식을 안겨주었다.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이 있고 **김일성**의 현명한 영도가 있음으로 하여 전쟁승리의 모든 요인들이 확고히 마련될 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김일성**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선노동당이 전쟁의 전기간 자기 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전투적 기능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모든 조직정치사업을 옳게 보장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었다.

전쟁승리를 위한 **김일성**의 탁월한 방침들과 고 실현을 위한 노동당의 조직정치사업은 전선과 후방에서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전투적 위훈의 주요한 담보로 되었다.

전선과 후방에서 모든 어려운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노동당원들이 서있었다. 노동당원들은 대중의 앞장에 서서 온갖 회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조선인민군이 **김일성**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군사적 방침들을 빛나게 구현하고 무비의 영웅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었다.

김일성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전쟁의 전기간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면서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도록 하였으며, 전투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세로써 적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타승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성장강화된 인민군대는 전쟁의 매 단계에서 나서는 어려운 군사전략적, 전술적 과업들을 어김없이 관철하여 전쟁의 최후승리를 쟁취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김일성**이 마련하여준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이에 기초한 후방의 공고성에 의하여 보장되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역사적 승리는 우리 공화국과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의 뚜렷한 시위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우리의 인민민주주의제도는 평화적 건설시기뿐 아니라 전쟁시기에도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나타내었다. 인민민주주의제도는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역량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 성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후방의 공고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기초로 되었다.

인민민주주의제도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을 체험한 조선인민은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높은 애국적 헌신성과 자기희생성을 발휘하였으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영웅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높은 정치적 자각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인민군대에 차원적으로 입대하여 그 대열을 끊임없이 보충하였으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헤치고 전선의 수요를 보장하였다. 전선의 승리를 위한 후방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투쟁은 인민군대의 전투활동을 힘있게 고무해 주었으며 전쟁승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물질적 및 정신적 담보로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또한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국제주의적 지지성원속에서 이룩되었다.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수억만인민들의 강력한 지지성원, 물심양면으로 되는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 걸치는 지원을 받았으며 이것은 우리의 승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전협정당시 판문점

조국해방전쟁의 역사적 의의

현대조선역사

김일성 彭德怀 Mark W. Clark

KIM IL SUNG
Marsh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preme Commander, Korean People's Army

PENG TEH-HUAI
Commander, Chinese People's Volunteers

MARK W. CLARK
General, United States Army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PRESENT

W. K. Harrison

NAM IL
General, Korean People's Army
Senior Delegat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WILLIAM K. HARRISON, JR.
Lieutenant General, United States Army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졌다.

그것은 첫째로, 조선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하였으며 우리 공화국과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을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하였다는 데 있다.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자기의 희생적 투쟁으로 현대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무력침략군을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침해로부터 우리 조국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호하였으며 민주개혁의 성과들과 민주기지를 수호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우리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침략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켜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고 자주적 인민으로서의 혁명적 기개와 영웅적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쳤다.

우리는 혁명의 모든 전취물들을 보위하고 공화국 북반부혁명기지를 수호함으로써 민족최대의 숙망인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역사적 의의는 둘째로,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전체 인민이 **김일성**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되었으며 우리의 주체적 혁명역량이 비상히 강화되고 고귀한 경험이 축적되었다는데 있다.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었으며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세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습니다. 특히 전쟁의 가열한 불길속에서 수십만의 혁명적 골간들이 새로 자라났습니다.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자란 이 혁명간부들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여야 할 귀중한 재부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매우 고귀한 밑천입니다.≫(김일성저작집)

조선노동당은 전쟁의 가열할 불길속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세련되고 단련되었으며 인민정권도 전투력있고 공고한 불패의 혁명정권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전쟁의 포화속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해지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은 필승불패의 현대적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또한 전쟁수행 과정에서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대열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었으며 오랜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노간부들과 함께 수십만의 새 간부들이 자라났다.

조선인민은 전쟁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되고 혁명적으로 단련되었으며, **김일성**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그 어떠한 애로와 난관도 뚫고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굳게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앞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중첩되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박차고 싸워이길 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되었다.

셋째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국제적으로도 큰 의의를 가졌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콧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 버렸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 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 놓았습니다.≫(김일성저작집)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 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적 인민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의 침략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다.

미제는 자기의 오랜 침략역사에서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으며 전세계 인민들 앞에서 그 ≪강대성≫의 신화는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났다.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 미제의 새로운 세계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튼튼히 틀어쥐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정복할 수 없다는 것, 비록 작은 나라 인민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을 굳게 믿고 하나로 뭉쳐 싸운다면 아무리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 침략자들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역사적인 승리를 계기로 세계 피압박인민들, 혁명적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제국주의 식민지체계는 급속히 무너져가게 되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제국주의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견해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조선전쟁의 경험은 제국주의의 본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침략적 본성이 더욱더 악랄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피압박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그리고 세계평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는 것으로써는 결코 이룩될 수 없으며 오직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고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 조선전쟁의 경험은 또한 전쟁에서의 무기 만능주의를 논박하고 전쟁승리의 제1차적 요인은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상의식의 견실성에 있다는 것, 이 견실성에 기초해서만 무기의 위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실증하였다.

김일성은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혁명전쟁 및 현대전에 관한 이론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켰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밝힌 군사전략사상과 군사예술, 영활무쌍한 전술과 전법들은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의 재부로,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 반제반미투쟁의 강유력한 무기로 된다.

김일성의 영도밑에 조선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일대 역사적 사변이었다.

조선정전협정

정치사전

조선인민이 미제가 조선에 대한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을 저지파탄시키고 력사적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첫걸음을 마련한 국제조약. 미제국주의자들은 3년간에 걸쳐 조선에서 저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감행하다가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돌이킬수 없는 군사정치도덕적패배를 당하고 전쟁을 계속할수 없게되자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조선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었다. 정전협정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할 목적으로 체결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전쌍방은 정전후 3개월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는 문제 등을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다음으로 정전협정은 적대적군사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조건들을 규정하였다. 정전협정은 정화의 구체적조건들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으며 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정전후 조선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정전협정은 정전의 리행을 감독하며 정전협정위반을 협의하여 저리하기 위한 정전감독기구들을 창설할 것을 예견하였다. 여기에 따라 정전쌍방대표들로 구성된 정전의 전반적감독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종속적감독기구로서 공동감시소조, 전쟁포로송환위원회,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 등이 조직되였다. 이외에 정전위반사건들을 조사감독하는 중립감독위원회와 직접 송환되지 않는 전쟁포로의 피송환권의 행사를 보장하며 그 실현을 감독하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설치되였다. 조선정전은 무기한의 전반적정전으로서 조선문제의 자주적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대적군사행동을 완전히 정지시킨다. 조선정전은 정전쌍방중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적대적군사행동을 도발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정전협정체결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승리입니다. 정전은 비록 조선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정전협정의 체결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첫걸음으로 되며 긴장된 국제정세의 완화에 기여한 첫 모범으로 됩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396 ~ 397페지)

조선정전협정의 체결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필승불패라는 것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선 인민은 어떠한 원쑤와도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선에서 미제의 침략전쟁을 종식시키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얻게 되었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고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또한 아세아 나라들을 위협하던 미제의 침략기도를 분쇄하고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지켰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전협정체결이 결코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책동을 완전히 저지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제는 조선정전협정에 조인한후에도 조선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않고 정전협정의 모든 규정들을 계통적으로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침략전쟁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미제는 전쟁포로들을 비법억류하고 송환을 거부하였으며 한급 높은 정치회의소집을 거부하였다. 또한 미제는 원자및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적인 살육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남조선에 반입하고있으며 매일과같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적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조선에서 정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최근시기 더욱더 악랄해지고 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파괴유린하고 침략전쟁을 끝내 도발한다면 더 큰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할것이며 얻을것이란 시체와 죽음뿐일 것이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 참관자 지난 14년동안 380여만명

조국해방전쟁승리 48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외국의 벗들이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그 어느때보다 많이 찾아 오고 있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남으로써 올해에만 하여도 그 수는 1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로병들로부터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로동자, 농민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이 사적지를 끊임없이 찾아 옴으로써 지난 14년동안 참관자수는 38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0(1951)년 1월부터 주체42(1953)년 7월까지 이곳에 자리 잡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 계시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신 성스러운 땅이다. 이곳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전승업적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조국해방전쟁사적관,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던 최고사령부지휘처와 작전실을 비롯한 사적건물들, 여러 야외사적들이 있다. 또한 최고사령부지휘처와 삼석인민학교 등 여러 사적건물들이 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0, 7월 26일

제2 해방의 날

조선에서는 7월 27일을 제2해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8년전 이날 조선을 불의에 침공(1950. 6. 25)한 미제가 쓰디쓴 참패를 당하고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제는 세계≪최강≫을 떠벌이며 며칠내로 조선을 완전히 먹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미제는 조선전선에 륙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와 남조선군과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 들여 도합 200여만명의 병력을 투입하였다.

적비행대는 전쟁 3년간 105만회이상 출격하여 그 85프로를 평화적대상들에 대한 폭격과 기총사격에 집중하였다.

이 비행대가 3년간 조선에 투하한 폭탄량은 56만 4, 430여 **t** , 나팜탄은 3만 2, 350여 **t** 에 달한다.

미제는 태평양전쟁에서 소모한 군수물자의 11배에 달하는 7, 300만 **t** 이상의 군수물자를 소모하였으며 150억딸라의 직접적군사비와 1, 500억딸라의 간접적군사비를 탕진하였다.

조선전쟁은 이처럼 전쟁력사에서 가장 가렬처절했던 현대전쟁이였으며 좁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벌어 진 ≪사상최대의 전쟁≫이였다.

조선인민이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백전백승의 지략과 전법,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주석께서는 전당, 전민, 전군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조선을 영웅의 나라로, 조선인민을 영웅적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0, 7월 27일

영장과 전승

7월27일은 북침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이북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지 49년이 되는 날이다.

세인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은 청소한 이북을 요람기에 병탄하려고 1950년 6월25일 북침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개시 3년만인 53년 7월27일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하고 휴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때로부터 7월은 이북에 있어서 승리의 달로, 미국에 있어서는 참패의 달로 역사에 새겨지게 되었다.

당시 미극동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까지도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역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휴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띠게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이 실패라는 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이 역사의 날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민족사에 빛나는 전승의 장을 안아온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일성**장군님의 그날의 불멸의 공적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게 된다.

당시 미제는 건국한지 2년도 못되는 청소한 이북을 압살하고 저들의 지배권을 이북땅에까지 확대하고자 2백여만의 대병력으로 6.25북침전쟁의 불을 질렀다.

유격군이 정규군으로 개편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이북대 미국간의 전쟁은 온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세인의 예상을 뒤엎는 기적이 일어났다.

일제를 쳐부순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신비한 전략전술, 탁월한 영군술에 의해 패전을 모른다는 아메리카 양키들의 신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일찍이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광복의 큰뜻을 지니시고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을 토대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백만대군과의 항일성전을 선포하신 **김일성**대장군님.

김일성장군님은 15성상 백두광야를 주름잡으시며 신출귀몰, 승천입지의 지략으로 일제백만대군을 삼단베듯 쓸어버리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신 만고절세의 위인이시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의 전통을 토대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무적강군으로 키우시였기에 조선인민군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수는 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사상의 힘으로 강적을 압도하시고 천재적 지략과 주체적 전법으로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미제침략군을 죽음의 함정골에 몰아넣으시였다.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영도로 하여 15개추종국가 군대들까지 끌고 북을 단숨에 점령할 기세로 달려들었던 미국은 무리죽음만 내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멸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영장을 모시어 안아온 7.27전승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낸 ≪영웅조선≫의 힘의 과시였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주의 수괴 미국을 타승한 세기의 기적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룩하신 그날의 전승과 백전백승의 전통은 오늘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빛나게 승계되고 있다.

백두산빨치산의 아들이신 **김정일**장군님은 비범한 지략과 담력, 탁월한 영군술로 미국을 필두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북침전쟁기도를 걸음마다 분쇄하시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시는 희세의 천출명장이시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특유의 선군정치, 선군영도로 조선인민군을 백두산강군,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워주시어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때려 부술 수 있게 준비시키시였으며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다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능의 보검인 선군정치로 ≪악의 축≫이니, ≪핵선제타격≫이니 뭐니 하면서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발동해 이북을 압살하려고 발악하는 미국을 총한방,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무릎꿇리시고 민족의 운명과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 민중과 세계 진보적 인류는 미국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북대결소동을 걸음마다 격파분쇄하시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해 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에서 50년대 그날의 위대한 영장 **김일성**장군님을 보고 있다.

김일성주석님 그대로이신 천하제일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민족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침략자들과의 대결에서 백전백승하리라고 확신한다.

정옥수 - 구국전선 주체91, 7월 21일

뛰어난 지략, 탁월한 영군술

인류역사는 시대와 역사 앞에 쌓은 업적으로 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위인들과 명장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처럼 걸출한 사상이론가, 정치가로서 뿐아니라 탁월한 군사전략가로서의 뛰어난 지략과 영군술을 지니시고 그렇듯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위인은 없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세대에 두 차례의 제국주의와의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20세기 인류해방투쟁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인중의 위인, 명장중의 명장이시다.

예로부터 영장의 위대성은 뛰어난 전법에 있으며 싸우는 방법을 모르고서는 군사를 이끌 수 없다고 하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세계전쟁사에서 아직 있어보지 못한 독특한 군사전법을 창조하시어 일제를 쳐부수는 민족해방전쟁과 미제무력침공을 타승하는 정의의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과 그 추종국의 수백만대군의 침략을 탁월한 군사사상과 지략, 독창적인 주체전법과 영군술로 단호히 물리치고 미국에 역사상 첫 패배를 안기셨다.

그분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습격전, 유인전, 매복전, 도시진공전, 야간습격전, 조우전, 방어전, 반포위전 등을 비롯한 무수한 전투형식과 적의 양적, 기술적 우세를 사상적 우월성과 전술적 우세로써 쳐부수고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또는 주동적으로 적의 약점을 조성하여 언제나 주도권을 쥐며 아군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많은 적을 소멸하는 등 영활한 전술들을 현대전쟁의 요구와 지리적 특성에 걸맞게 더욱 발전시키시고 풍부히 하셨다. 그분께서는 변화되는 군사정세를 언제나 제때에 정확히 판단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전략전술적 방침과 각종 투쟁형식,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고 전쟁전반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주요한 여러 전투들을 친히 진두에서 지휘하시어 그때마다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시었다.

전쟁행정에 그분께서는 수많은 천재적인 전략전술을 창시하시어 적을 공포와 전율 속에 몰아넣으셨다. 적의 불의의 침공에 대한 즉시적이고 전면적인 반공격전과 연속적인 타격전, 적의 배후에서의 대부대에 의한 제2전선 조직과 기본전선과 제2전선의 협동에 의한 대포위작전, 갱도에 의한 진지방어전, 적의 공중우세를 격파하기 위한 비행기사냥꾼조운동과 저격수의 활용 등은 전쟁사상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그분께서 전쟁정세의 주객관적 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여 창시하신 가장 탁월한 전략전술들이었다.

이밖에도 그분께서 전쟁기간에 창조하시고 활용하신 전략전술과 방침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이 많다.

실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탁월한 군사전략으로서 전쟁 첫계단에서는 인민군대들로 하여금 적의 불의의 공격에 대한 즉시적이고도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전쟁 3일만에 벌써 서울을 해방하고 2개월만에는 이남의 영토와 인구의 90%이상을 해방할 수 있게 하셨다.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시기에는 적의 주력을 견제하시면서 적후에 제2전선을 조직하시고 적을 앞뒤로부터 연속적으로 때려부셨다.

그런가 하면 더욱 증강된 적들이 기본전선에 동서해안 상륙을 배합하여 계속 공격을 시도할 때에는 영구축성물에 기초한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으로 적들을 결정적인 패전에로 몰아가셨다.

호주의 한 인사는 6.25전쟁이 이북의 승리로 막을 내리자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각하는 항일대전시기부터 어느 전쟁사나 병서, 병법에도 없는 신묘한 전술을 쓰셨다. 적아간의 역량, 기술적 대비에서는 하늘과 땅차이지만 전쟁에서 북이 승리하게 한 것은 **김일성**각하의 영장의 지략과 담력, 처음보는 영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

의미가 깊은 말이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영장다운 지략과 담력, 탁월한 영군술이 전승을 이룩하게 했던 것이다.

6.25전쟁이 있은 때로부터 근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 우리에게는 **김일성**주석님과 똑같으신 또 한분의 백두산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있다.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미제의 침략책동은 분쇄될 것이며 우리 민족은 조국을 통일할 것이다.

김영숙 - 구국전선 주체91, 7월 21일

선군영도와 무적강군 - 7.27에 즈음하여

올해는 참으로 환희로운 해이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주년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70주년을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환희 속에 뜻깊게 기념했다.

그래서인지 올해의 7.27은 의미도 유다르고 생각도 깊어진다. 분명 올해의 7.27은 50년대의 7.27전승절만이 아닌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이북에 있어서 제2, 제3의 7.27전승절이라 생각된다.

세인을 놀래우는 군사적 기적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정상위에 우뚝 세우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우리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영도로 백승을 떨치신 나날들을 되새겨 본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반미투쟁의 수많은 결전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세기 90년대처럼 안팎으로 엄혹한 난국의 시기에 치열한 사생결단의 반미대결전을 벌인 적은 없었다.

93년 2월 이북의 핵시설들에 대한 ≪특별사찰≫소동, 이북점령을 골자로 한 ≪작전계획 5027≫을 완성하고 그 실행에 들어가려 한 1998년, 그러나 그때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준전시상태선포, NPT탈퇴, 제재는 정전협정의 파기로 간주될 것이라는 사실상의 선전포고,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만약 전쟁을 강요한다면 다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과 같은 초강경대응으로 미국의 기를 꺾고 전쟁도발기도를 단호히 분쇄해 버리시었다.

총포성없는 반미대결에서 옹근 한차례의 전쟁을 이긴 것보다 더 큰 전과를 올리게 된 비결은 전적으로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백전백승의 현명한 선군영도와 그 분의 손길아래 자라난 무적강군의 위력에 있다.

총대는 사회주의수호의 위력한 담보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근 연간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겹쌓인 난관으로 하여 사회주의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하는 엄혹한 정세속에서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사상, 총대위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는 총대철학을 제시하시고 선군정치방식을 새롭게 정립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사상에는 군대는 곧 혁명의 주력군이며 따라서 모든 승리의 비결은 전적으로 군력강화에 달려있다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이 맥박치고 있다.

총대의 위력은 사상의 위력이다.

이로부터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 사상론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었으며 모든 인민군 군인들을 수령절대숭배의 체현자로,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인민군대정치사상사업의 기본방향으로, 기본목표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전군 주체사상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빛나게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키우신 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며 당풍에 기초한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여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영도체계를 세우도록 하신 분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었다.

장군님의 영도밑에 오늘 인민군대는 총대를 억세게 거머쥔 신념의 강군, 수령숭배심이 투철하고 사상정신상태가 결백하며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찬 사상의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되었다.

1996년 11월 서해상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남군당국에 억류된 이북의 정광선사병의 신념을 잊을 수 없다.

그는 전향을 강요하는 군당국에 자기는 살아도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충신으로 살고 죽어도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충신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일**최고사령관의 품으로 돌아가게 길을 막지 말라고 했다.

바로 이것이 사상의 강군, 인민군대의 모습이다.

군사기술적 위력은 군력의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더욱이 힘의 균형이 파괴된 오늘의 국제관계는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약육강식의 난무장으로 화했다. 아프간사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힘이 약한 나라는 폭탄세례를 받아 황폐화되어도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러한 현세계정세를 꿰뚫어보시고 힘은 힘으로 타승해야 한다는 철리에 기초하시어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든 지휘관들이 주체의 군사전법으로 무장하고 높은 작전능력을 소유하며 방어전역을 더욱 철옹성같이 다져나가도록 하시었으며 전투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준비시키도록 하시었다.

사탕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가시는 장군님의 영도에 의해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이 강화되고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가 보다 현대화되고 위력해졌다.

오늘 이북은 미국의 대북압살전략을 총파산에로 몰아넣고 이북을 명실공히 대국적 지위에 올려세운 정치적 승리를 이룩했다.

1994년 10월 **김정일**장군님께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담보서한과 그 시기에 채택된 북미기본합의문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이 이북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인정한 공식문서였다면 2000년 10월 장군님의 특사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들어가 미국대통령을 만나고 채택발표한 조미공동성명은 미국이 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파산을 인정하고 또다시 항복한 것이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영도, 무적강군이 있음으로 하여 부시호전집단이 오늘 북을 두고 ≪악의 축≫이니, ≪핵선제타격≫이니 뭐니 하고 있지만 이북을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영도아래 막강한 이북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국제문제들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정치대국, 군사의 강국이다.

참으로 독창적인 선군영도로 무적강군을 키우시고 그 힘에 의거하여 제2, 제3의 7.27을 안아오신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다.

이정수 - 구국전선 주체91, 7월 21일

김정일국방위원장추대 2돌기념 중앙보고대회

조선노동당 창당 55돌 행사

휴전협정과 미국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덮씌운 미국이 일으킨 6.25전쟁, 6.25전쟁의 총포성이 멎고 휴전협정이 조인된지 근 반세기가 가까워오는 4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휴전협정과 미국 이런 내용으로 오일씨, 김현규씨 두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미국이 강요한 3년간의 전화가 멎고 휴전협정이 조인된지 48년이 되었습니다. 휴전의 실현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마련한 바람직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휴전협정이 조인된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까지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고 도리어 전쟁의 먹구름만이 더욱더 짙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세는 우리 국민은 물론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인류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반도에 휴전이 실현되어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분위기가 좀처럼 가셔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셨는데요. 어느분 먼저 좀 말씀해주시죠.

오 일 : 네, 다아시는것처럼 *******는 휴전협정을 통한 평화를 확약하는 협정이었죠. 전쟁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휴전협정은 사실상 새전쟁위험을 ***겁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휴전협정이 체결된지 48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도 한반도에는 여전히 핵폭풍, 전쟁먹구름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 휴전협정 그 자체가 ***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주요하게는 휴전협정을 백지화하고 새전쟁준비책동에 집착하는 미국측에 핵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김현규 : 그러니까 전쟁이 멎은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땅에는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과 대결의 냉기만이 감돌고 있는건 전적으로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도 그에 동감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건요, 전쟁위험의 가중이라는 역설현상이 미국의 침략적인 대한반도정책의 궤도선상에서 빚어진 필연적 조성이라는게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다아는 사실이지만 미국은 6.25전쟁을 도발하고 단숨에 이북을 병살하려다가 마침내 패전의 고배를 마시고 끝내 이북앞에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은 6.25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고 물러갈 대신에 도리어 휴전 첫날부터 협정사항을 고의적으로 난폭하게 위반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북침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왔죠.

사회자 : 미국이 휴전협정사항들을 어떻게 위반했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북 쌍방이 서명한 협정조항들을 참조하고 그에 기초해서 시비를 가리는게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규 : 네, 그러죠. 우선 휴전협정에는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목적으로 서약쌍방이 협상발효 3개월내에 정치회의를 열고 한반도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 등을 합의할 의무를 지닌 항목을 비롯해서 휴전의 확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미국은 그 어느조항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회의를 열고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한 문제도 일방적으로 파탄시켰고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규정한 조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군의 영구주둔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휴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할 사명을 지닌 중립국 감독위원회사찰소조 마저 자기 관할지역에서 추방했습니다. 작전장비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조항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1천여개의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살인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대량 반입했고 이밖에도 포로송환문제, 실향민 귀환문제 등 미국은 쌍방간에 합의한 약속을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 네, 그렇죠. 미국이 이러한 휴전협정파괴, 유린행위 자체가 단연코 한반도에 대한 침략목적실현의 발현이었고 그 일환이라고 봐야 할것같습니다

오 일 : 네, 그래요. 미국은 휴전협정을 파괴하는데서 두 개의 방향에서 진행했죠. 하나는 정치회의를 파탄시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반도 통일문제해결을 파탄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전쟁준비와 군사****을 강화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이땅을 제2의 6.25전쟁도발의 온상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이북을 힘으로 압살하고 전한반도를 병참화하려는 변함없는 야망밑에 휴전협정과 유엔결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이땅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지 않고 있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거듭 주장하는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전력과 군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이땅을 미국의 화약고 전변시켰는데요. 미국의 호전광들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운운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 핵무기의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떠드는 건 한국을 극동전략실현을 위한 군사적 병참으로 확보하고 나아가서 무력으로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는 그런 속셈이죠.

김현규 : 네, 그렇죠. 미국은 바로 그런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북의 위협과 북의 군사적 공세를 떠들면서 그걸 구실로 한국에서 전력 증강에 계속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한반도를 아시아관문으로 보고 있는 미국은 이곳을 힘의 대결의 시험장, 한국을 미국전략의 제일선지역으로 선포하고 여기에 1세대 핵무기로부터 3세대 핵무기에 이르는 1천여개의 각종 핵무기와 방대한 침략무력을 배치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이 휴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북침전쟁도발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건 그밖에도 여러 가지 사실에서도 이야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일 : 네, 미국이 이른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기동타격무력이다, 신속방위전개무력이다 하는 것들을 편성해놓고 항시적인 ****라든가 한반도전쟁을 가장한 일본과의 작전회담과 휴전선상에서 정찰행동을 계속하면서 전쟁의 구실을 마련하려고 책동하는 사실을 봐도 그렇고 미국은 이땅에서 무력북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건 냉전시대의 힘의 정책을 되살리려는 것으로써 완화와 평화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추세로 보나 휴전협정조항에 비추어봐도 용납될수 없는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김현규 : 그렇죠.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건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침을 위한 새전쟁책동이 더욱 노골화,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있지도 않는 북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며 북과의 대결자세를 한층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북을 힘으로 압살하고 전한반도를 거머쥐며 이곳을 발판으로해서 침략적인 대아시아태평양전략을 실현하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기도입니다. 미국은 저들의 이러한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그 주변에서의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최신항법장치 등 각종 첨단장비를 탑재하고 야간특수전 작전이 가능한 엠에이치47이 헬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한데 이어 그에 따르는 운용지원부대를 새로 끌어들이려고 책동한 것은 그 단적 사례이고요, 북의 미사일발사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동해에 요격미사일을 장비한 이지스함 두척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등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소동을 연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벌인 이른바 전시증원연습도 그렇고 이번에 한미해군이 부산앞바다에서 벌인 연합기뢰전훈련도 바로 그런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까 휴전협정을 유린하고 한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극한 상황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 어제나 오늘이나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것이 명백한데요,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평화와 완화를 위한 시대추세로 보나 특히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지향으로 보나 매우 온당치 못한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오 일 : 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침략야망은 6.25북침전쟁을 도발한 직후에나 지금에나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또 달라질수도 없는거죠. 휴전협정 조인된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분열상태가 지속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먹구름만이 계속 감돌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이러한 침략적인 전쟁정책 때문이였죠.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지배가 계속되고 전한반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북침야망이 종식되지 않는 한 휴전협정은 지켜지지 않을 거고,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은 이루어질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휴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식민지 이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것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0, 7월 26~27일

정전협정장

깨어진 신화, 패배자의 고백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는 6.25북침전쟁에서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49년전 7월 27일은 미국이 이북을 병탄하여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북침전쟁을 일으켰다가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한 날이다.

미국은 청소한 이북을 요람기에 삼키려고 미육해공군무력과 15개추종국가군대 등 도합 2백여만의 병력과 막대한 군사장비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주체전법과 탁월한 영군술에 의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는 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말았다.

미국은 3년간 전쟁에서 40여만명의 미군을 포함한 1백50여만명의 유생역량을 살상 및 포로당했고 1만 2천대의 비행기, 수만대의 탱크와 각종 포 등 막대한 기술장비들을 잃었다.

이로써 1백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한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뽐내던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침략전쟁에서 한번도 패한 적이 없고 북침전쟁도 아침은 해주,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미국의 패전장군들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역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휴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띠게 되었다.≫(클라크)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다. …우리는 조선에서 심대한 패배를 당했다.≫(전 미국무장관 마샬)

≪6.25전쟁은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한 전쟁이었다.≫(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래들리)

≪미국이 조선에서 …틀림없이 격파되었다는 것은 매우 명백한 일이다. 세계에서 그들을 격퇴하기에 충분한 부대는 없다.≫(미군장성 태프트)

이북의 전승과 미국의 패배는 그 어떤 강적도 위대한 영수를 모신 우리 민족을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 주었다.

미국은 6.25북침전쟁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는 격으로 새로운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최근 부시는 ≪악의 축≫이니, ≪테러지원국≫이니, ≪핵태세보고서≫이니 하면서 북침전쟁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실현을 위해 광분하고 있다.

미국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시대와 인류의 요구를 외면하고 제2북침전쟁을 도발한다면 미국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천재적 지략과 영군술, 그분의 선군혁명영도아래 자라난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에 의해 6.25전쟁때보다 더 큰 참패를 면지 못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기철 - 구국전선 주체91, 7월 21일

그날의 협정조인장

1953년 7월27일 하오. 문산으로 뻗은 큰길위로 미야전지프들이 질주하고 있었다.

차창을 내다보는 미군장성, 제독들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오 1시,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는 휴전협정 조인식장에 고개를 푹 떨구고 들어섰다.

수백명에 달하는 내외 신문, 방송기자들은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며 저저끔 한마디씩 했다.

≪패전장군이 나타났다.≫

≪**김일성**장군과의 대결에서 미국은 완전 케이오우를 당했다.≫

≪**김일성**장군은 웃고 있고 아이젠하워는 울고 있다.≫

플래시의 섬광을 받으며 자리에 앉은 클라크의 창백한 얼굴에는 착잡한 심정이 어리었다.

그는 말도 하지 않았다.

상위에 놓인 휴전문서를 잠시 들여다보던 클라크는 조심스레 파아카만년필을 뽑아들고 문서에 사인하였다.

이날의 광경에 대해 서울≪희망사≫발행 ≪해방10년≫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하오1시20분, ≪크≫대장의 최후조인은 끝났다.

조인을 마친 ≪크≫대장 일행은 강당밖 7월중복의 염천속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일로전쟁의 여순회담에서 보는 대추나무도 아닌 열매없는 이름모를 나무밑에서 사진을 찍는 그것은 마치 일그러진 휴전조인의 측면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듯! 멀리 문산 푸른들 저쪽에 주인잃은 초가삼간 농가가 파노라마처럼 보였다.≫

휴전조인을 마친 클라크는 미국역사에 없는 항복문서에 사인한 수치로 하여 눈물을 흘리었다.

이날 서울에 돌아온 미군의 한 장성은 ≪무관의 솔직한 마음으로 말하건대 미국이 **김일성**장군과 맞선 것은 대실책이었다≫고 말했다 한다.

휴전협정의 체결로 이북은 신화적인 나라로, 위대한 강국으로 더욱 부상되었으며 이때부터 세계 피압박민중은 자기의 새 시대, 승리의 신화를 가지게 되었고 미국은 멸망의 황혼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백철수 구국전선 주체88, 7월 21일

미국은 7.27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미국에 의해 강요되어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 준 6.25전쟁이 7.27휴전협정으로 막을 내린 때로부터 48돌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제국주의수괴로 등장한 미국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그를 발판으로 아시아대륙과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6.25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청소한 이북을 요람기에 삼키려고 미육해공군무력과 15개 추종국가군대 등 도합 2백여만의 병력과 막대한 군사장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3년간의 전쟁을 통해 미국측은 40여만명의 미군을 포함한 1백50여만명의 유생역량을 살상 및 포로당했고 1만2천여대의 비행기, 3천2백50여대의 탱크와 장갑차, 5백60여척의 군함 등 막대한 군사기술장비를 잃었다.

7.27휴전협정조인을 통해 1백여차의 침략전쟁에서 한번도 패한 적이 없다던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가 여지없이 깨어지고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6.25전쟁은 그 어떤 강적도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민족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근 반세기가 흘렀으나 이 땅에는 분단이 지속되고 새 전쟁의 먹구름이 가셔지지 않고있다.

그것은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은 정치군사적 및 도덕적 참패를 당한 7.27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새로운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그들은 휴전협정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최신군사장비를 계속 끌어들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이북을 반대하는 전쟁연습들을 연일 벌이고 있다.

이미 공개된 ≪5027-98≫이라는 전쟁시나리오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북침전쟁광증은 부시행정부가 출범한 후 더욱 악랄해졌다.

그들은 6.15공동선언발표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는데 당황하여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정세를 인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

세계가 반대하는 NMD구축강행도 이른바 ≪북의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내들고 있다.

미국의 목적은 한반도를 영원한 저들의 식민지로 타고 앉으려는 것이다.

미국지배층에서 흘러나오는 주한미군영구주둔론은 그에 대한 반영으로 된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7.27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역사를 망각하고 끝끝내 새 북침전쟁을 일으킨다면 48년전과 같은 항복서가 아니라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파멸이 차례갈 것이다.

성철훈 - 구국전선 주체90, 7월 21일

북미군사대결 제4회전 - 1993~1994년의 핵위기

클린턴이 1992년 가을 대통령선거에서 부쉬를 이기고 대통령으로 올라앉자 미국은 북한과의 대결자세를 강화했다. 북한의 ≪핵의혹≫문제가 발생한 것은 언제부터였으며 크린턴집권이전의 미국정부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왔던가? 더듬어 보느라면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외교의 징크스로 흔히 이야기되는 말에 ≪민주당정권이 해외에서 전쟁이나 분쟁을 시작하고 공화당정권이 그것을 수습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북의 핵문제에서도 타당한 말일까?

이른바 북한 ≪핵의혹≫, ≪극비 핵무기개발계획 의혹≫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1986년경부터 발생된 것으로서 미국과 프랑스의 첩보위성이 포착한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진이 계기로 되었다고 한다. 당시 백악관 주인은 소련과의 별세계전쟁으로 유명해진 레이건 이었는데 2기째 임기 중이었다. 레이건의 두 번째 임기는 1988년에 끝나고 그 뒤를 이은 것이 같은 공화당의 부쉬였지만 그는 1기(1989-1992년까지)로 임기를 끝냈다.

별세계전쟁으로 소련을 위협한 레이건 전권은 북한의 핵의혹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걸프전에서 하이테크무기를 가지고 대승리를 거둔후 다음 목표는 북한이 아니냐는 소문이 자자했던 부쉬정권시에도 레이건과 똑같은 대응을 하였다. 왜 그랬는가?

이 양 공화당정권은 북한의 핵의혹발생후 강경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반면에 북미회담을 적어도 33차에 걸쳐 베이징에서 진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하여 못믿을 정도의 융화정책을 취하였다. 그 이유는 명백하였다. 레이건, 부쉬 양 공화당정권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실패한 죤슨이나 닉슨, 포드와 같은 패배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을 피한 부쉬는 1978년부터 해마다 실시해오던 핵공격연습인 ≪팀 스피리트≫의 중지를 발표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부쉬는 1991년 9월 27일 남한으로부터의 전술핵무기 철수도 선언하였다.

또한 부쉬정권은 북한사찰관의 주한미군기지의 현지핵사찰에 동의한다는 의향까지 표명,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맹했고 남북 고위급회담도 시작되었으며 1991년 12월 13일에는 남북한간의 불가침협정까지 맺어지고 한반도의 비핵화선언까지 채택되었다. 다음해 1월에는 북한고관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정부와의 고위급 회담도 가졌다. 모든 것이 **김정일**의 계산대로 움직여나갔다.

하지만 1992년 가을 클린턴의 당선으로 또한 남한의 김영삼 당선으로 상황은 갑자기 달라져나갔다. 부쉬는 군복무경험이 있고 월남이나 이라크, 소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북한의 군사력과 그 정치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클린턴은 아무 것도 모르는 풋내기였던 것이다. 그는 월남전쟁당시 징병을 기피하였지만 카터 대통령의 ≪사면≫에 의하여 용서를 받고 공직에 취직할 수 있게 된 인물이었다.

쿠바위기 때의 케네디에 대한 동경심으로 정치계에 들어와 대통령자리까지 올라앉은 클린턴이었다. 그는 미국의 핵지배를 국익이라고 판단하엿고 북한을 굴복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그는 동구 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고 소련까지 소멸된 이상 북한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북한을 필요에 따라 공격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클린턴은 CIA에 시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국장인 스웨덴인인 블릭스를 미국의 의향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였다.

클린턴은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케네디였고 또한 과거에 월남전쟁을 기피했다는 과거때문인지 자기도 강한 사내이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던 것 같다. 소위 ≪깡패국가≫인 작은 나라를 응징한다면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줄 것이라고 타산한 것이다.

1993년에 북한의 핵시설을 둘러싸고 긴장상태가 고조되어 전쟁도화선에 불이 달릴 지경에 이르렀다. 클린턴취임후 1달이 지난 2월 25일, IAEA는 북한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군사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로 단정짓고 전례 없는 특별사찰을 요구하게된다. 여기에 발맞춰 클린턴은 3월부터 위험한 ≪팀 스피리트≫를 재개하였다.

이때 클린턴은 강경자세를 취하면서도 레이건이나 부쉬처럼 기동부대를 급파한다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미 군부나 CIA가 북한과 전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면서 기동부대의 파견을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는 통합참모본부에 한국전쟁의 시뮤레이션을 재검토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듭된 재검토결과는 미군이 참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는 위협과 IAEA를 통한 압력만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국제정세는 북한에 불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흰 기를 들것이라고 어리석게 판단했던것이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군사동맹국이었던 소련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도 사실상 자본주의 나라이며 북한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판단은 어느 면에서는 옳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틀리고있었다. 즉 상대를 잘못 본 것이다. 그는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인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있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도하에 반석같이 굳게 단결되어있는 북한이 온 나라를 역사상 보기 드문 거대한 요새로 전변시키고 미국과의 핵전쟁도, 재래식 전쟁도 불사할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본토에 보복공격을 가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였는지도 모른다.

이 시기 클린턴의 정신상태는 결전전야의 풋내기 장군과 같았다. **김정일**은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2000의 병력으로 10000만병력을 물리친 일본 역사의 어느 장군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우선 **김정일**은 클린턴의 콧대를 꺽어버릴 것을 결단하고 ≪팀 스피리트≫ 재개 전날인 1993년 3월 8일 인민군에게 준전시상태에 들어갈 명령을 내리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미군부대에 대해 임의의 시각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북한정부는 3월 12일 핵확산방지조약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 조약으로부터의 탈퇴는 60일 후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김정일**의 전략목표는 IAEA와의 문제를 대미정치군사문제로 전환시켜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데 있었다.

김정일은 용의주도하라는 말과 같이 최후에 큰 연극을 벌릴 것을 결심하였다. 그것은 북한의 대량보복능력을 시위하는 것이었다. 즉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군사연습과 미사일발사실험을 하자는 것이었다.

대미군공격을 가상한 군사연습은 1993년 3월 16일, 미국의 군사첩보위성에 의한 사진촬영이 가능한 시간을 골라 진행되었다. 4일후인 3월 20일, 바빠맞은 클린턴 정권은 북한측에 협상을 요구해 나섰다.

이때 **김정일**은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없는 조건에서 미사일발사시험 실시를 통보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미국앞으로 실험실시를 통보할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신형 지대지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었다. 1993년 5월 29일에 미사일을 3발 발사하였는데 1발은 일본의 노토반도(한국동해)끝의 공해 상에 착탄, 나머지 2발은 일본열도를 넘어 하와이부근 태평양 공해 상에 착탄시키겠다고 통보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일본자위대는 북한미사일발사실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였고 미국정부가 1개월 후에 통보해주어서야 법석 떠들면서 ≪노동1호≫ 발사실험이라고 하면서 소동을 피우게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실험은 통보된 대로 진행되어 미국의 첩보위성과 레이더망 앞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클린턴이나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시퍼렇게 기가 질려있었다. 북한에 대한 무력위협이 통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미사일공갈을 당했던 것이다.

이때로부터 미국정부관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사정거리는 1천KM이상있다느니, 수 천km에 달한다느니, 아직 개발단계에 있다느니, 가까운 미래에는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보유하게 될 것이라느니 등의 발표를 하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북한이 소유하고있었던 미사일은 모두 3발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미사일발사실험 성공으로부터 3일 후인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제1차 북미회담이 뉴욕에서 역사적인 막을 올렸다. 미국정부는 이 회담에서 북한에 핵사용 위협도 하지 않으며 북한정치제도를 인정, 존중하며 남북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약속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면 6월 12일에는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 탈퇴가 자동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클린턴 정권은 그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제2차 북미회담은 1993년 7월 14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렸고 3차 회담은 1994년 7월 8일에 개최되었는데 이해 10월 21일에 역사적인 북미핵합의서가 발표되었다. **김정일**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미대결에서 무혈의 대승리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미국이 제네바핵합의서대로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건설하여 넘겨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북미군사대결 최종회전인 제5회전이 시작될 것이며 결국 미국은 굴복하여 대폭적인 정치 군사적 양보를 강요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전쟁이 재발되어 핵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며 남한도 일본도 죽음의 폐허로 되고 말 것이다. 하와이와 미국 본토의 일부도 파괴되어 ≪죽음의 재≫가 미국본토에까지 쏟아져 내리게 될 것이다. 미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것이다.

김정일 조선통일의 날
- 북조선 전쟁과 평화의 시나리오